

# 오거스트 윌슨의 『일곱 대의 기타』에 나타난 과거의 환상과 현실 직시의 문제

정 승 조

## 차 례

- I. 윌슨의 작품세계: 과거와 환상
- II. 환상 속에 갇힌 과거
- III. 사회적 소통을 위한 현실 직시
- IV. 결론

### I. 윌슨의 작품 세계: 과거와 환상

오거스트 윌슨(August Wilson)은 1980년대의 미흑인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보다 흑인 내부의 삶을 조명하면서 문화와 역사 다시 쓰기에 주력하였다. 연극 비평가인 버코위츠(Gerald M. Berkowitz)는 윌슨을 가리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국 극작가이며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와 밀러(Arthur Miller) 이후 미국 연극계에 등장한 가장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주는 작가라고 평하였다(194). 윌슨은 1984년 『마 레이니의 검은 영덩이』(*Ma Rainy's Black Bottom*)를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한 이후 5개 작품을 추가 공연하였으며 뉴욕 드라마 비평가상(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 풀리처 상(Pulitzer Prize) 등을 수상하면서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관객 모두에게 인정받는 극작가가 되었다. 그의 작품 세계를 논할 때 항상 블루스(the Blues)가 등장하는데 윌슨 자신도 자신의 작품이 블루스에서 나오는 사상과 특질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Plum 561 재인용). 윌슨의 작품들은 블루스가 전체적인 구조를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흑인으로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과거 경험, 블루스 음악,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 흑인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윌슨의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것은 거대한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으로서 살아가는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이라 볼 수 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사회 속에서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윌슨은 이처럼 현대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들의 삶의 가치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흑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윌슨의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인이 겪었던 경험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이 오히려 환상으로 이어져 현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대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윌슨은 작품 속에서 비록 평범한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오히려 더 보편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극 속에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곱 대의 기타』(Seven Guitars, 1996)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과거의 집착과 자신이 만든 환상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윌슨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며 살아가는 다른 인물들과의 삶도 조명하면서 과거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현재의 환상 속의 삶은 결코 현재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작품 속에 강하게 투영시키고 있다.

비록 윌슨이 설정한 인물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평가들은 각 등장인물 개 개인이 각자 개성을 지닌 살아있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브렌다 머피(Brenda Murphy)는 일곱 명의 등장인물들이(they) 바로 일곱 대의 기타이며 그들은 각자 개인의 목소리와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124). 윌슨은 작품 속에서 각기 성격이 다른 일곱 명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정체성을 가지고 현대 미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윌슨이 개인의 과거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 경험들이 미국 사회 속의 흑인들이 겪는 보편적 경험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미국 사회 전체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쉐넌(Sandra G. Shannon)은 윌슨의 인물들은 집단적인 과거와 개인의 과거를 동시에 발견하

고 인정하며 그와 같은 과거와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166). 또 윌슨은 자신의 글쓰기의 목적을 미국 내의 흑인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삶의 견지에서 모든 문화의 공통적인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Bigsby 293).

윌슨의 어떤 인물들은 시대적 상황이 변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통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 그의 작품 속에서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틀 속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흑인 개개인이 겪었던 스스로의 경험 속에 갇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겪었던 직접적인 구속의 이미지는 대부분 저항할 수 없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 사회적 불평등 요소였다. 또 어떤 개인들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정보들로 인해 미국 사회 속에 동화될 수 없는 감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흑인들만의 독특한 구속의 이미지는 지배계급으로만 존재해왔던 백인들과는 공유될 수 없기 때문에 흑인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과거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떠올라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윌슨은 바로 개인들의 과거 경험들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마치 각 개인은 개별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사실 그는 흑인들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평범한 개개인들에게 부여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게는 완전하게 감옥과 구속의 상황을 부여하여 여전히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로 살아가게 한다. 또 어떤 개인에게는 시대가 변했음을 인지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다른 인물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윌슨이 그려내는 개인에 관한 과거의 경험은 흑인들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백인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에 갇혀서 움썅달썅 못하고 있는 흑인은 민스트럴 연극<sup>1)</sup>에 나오

1) 최초의 민스트럴 쇼는 1820년대에 짐 크로우(*Jim Crow*)라는 제목의 노래와 특유의 춤을 가지고 관객을 즐겁게 한 백인 라이스(T. D. Rice)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백인 민스트럴 쇼 공연자들은 코크를 태워 만든 가루로 얼굴을 검게 칠하고 입술은 붉게 칠한 모습으로 주로 시골의 게으르고 무식한 흑인의 옷차림, 말투, 노래, 춤

는 스테레오 타입 인물이다. 또 환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흑인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여전히 흑인에게 악몽 같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감옥”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Neal 152).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흑인들은 베이커(Baker, Jr.)가 말하듯이 “얼굴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흑인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쓸 수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104).

과거에 대한 환상 또한 윌슨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윌슨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는 흑인들이 지니고 있는 환상은 주로 미래에 대한 성공이나 꿈에 관한 것인데 노예시절과는 달리 자신의 재능에 대해 백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울타리들』 (*Fences*, 1987), 『마 레이니의 검은 엉덩이』, 『일곱 대의 기타들』의 작품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나 운동 재능을 백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펼치겠다는 환상을 갖고 있거나 또 백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또 실제로 음악과 스포츠 등에서 성공한 흑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 개인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꿈을 가질 수 있다. 윌슨이 작품 속에서 그리는 개인의 환상은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흑인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있는 성공은 백인에 의해 좌절되기도 한다. 그래서 윌슨은 작품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과 환상 속에 살아가는 인물을 대비시켜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상반된 인물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결국 윌슨은 환상 속에 살아가는 인물과 현실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인물사이에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 하는 작가적 판단 대신에 두 상반된 인물들을 통해 갈등, 충돌, 비판의 다양한 모습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상 속에 갇혀 지내는 흑인은 미래의 희망적 모습을 결코 제시할 수 없다는 점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

윌슨에게 보통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과 환상의 세계는 작품 속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윌슨의 작품과 개인이 겪는 과거의 경험 및

---

등을 흉내 내었다. 민스트럴 쇼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나아가 스테레오 타입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손홍일 2-3 참조).

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도 중요하다. 윌슨에게 있어서 일반 흑인들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작품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윌슨의 작품에 대해서 리차드(Lloyd Richard)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극들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어떤 시대의 사건에 대해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또는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 대화로도 접근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 중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거나 마주치기를 회피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접근하였다.

His plays have centered themselves in a decade and have illuminated the life of an oppressed people during that time. He has not approached the plays as historical chronologies of the events of a time, or even as dialogues on the problems of a time. He has approached everything through characters, characters who any of us may have encountered or avoid encountering on the street. (202)

흑인 개개인의 과거 경험은 백인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흑인 전체 또는 흑인 공동체의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윌슨의 인물들은 비록 혼란 거리에서도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들일지라도 윌슨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이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작품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은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지만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또 종종 흑인들은 주로 음악적 재능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갖고 있는 음악적 기질과 능력은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음을 자신한다. 비록 환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약과도 같은 것이니 환상 속에 갇혀 있는 흑인은 적극적으로 현실 속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윌슨의 『일곱 대의 기타』를 통해서 과거와 환상 속에 갇혀 현

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분석하고 다음은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는 인물들이 과거 속에 갇힌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Ⅱ. 환상 속에 갇힌 과거

『일곱 대의 기타』에는 등장인물들이 과거와 환상 속에 갇힌 다양한 구속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우선 플로이드(Floyd)라는 인물의 장례식을 먼저 제시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삶과 주변 인물들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담이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플로이드를 비롯한 일곱 사람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윌슨은 플로이드, 레드 카터(Red Carter) 헤들리(Hedley), 케인웰(Canewell), 베라(Vera), 루비(Ruby), 루이스(Louise) 일곱 명의 등장인물들을 다루면서 어느 한 개인의 삶을 더 특별하게 비중을 두어 다루지는 않는다.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각각의 역동적인 모습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윌슨은 일곱 명의 인물들의 과거가 흑인들의 과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과거를 통해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 지도 깨달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에서 과거의 경험과 환상은 매우 강한 감옥과 구속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윌슨은 케인웰의 중립적 시각을 통해서 흑인들이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환상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흑인들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즉 흑인들은 과거 속에 너무 집착해서 빠져 있어도 안되고 또 환상 속에 사로 잡혀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흑인들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개인이 처한 과거의 경험과 개별적 환상이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지만 흑인 개인들이 겪었던 독특한 경험은 보편적인 공유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의 과거의 경험과 환상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매우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사와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극은 개별적이지만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작품이 더욱 호소력을 갖게 된다. 과거와 환상 속에 갇혀 있는 등장인물

들은 아무리 좋은 안식처나 대안을 제시해도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 구속되어 전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환상은 자신들의 판단에는 지극히 옳은 결정이기에 다른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당당하다. 자신들의 경험과 논리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그들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구속되어 있는 이미지는 매우 견고하여 과거의 경험과 환상을 매우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구속되어 있는 이미지는 곧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스(Mills)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들이 여전히 정체성 탐색을 위한 정신적 항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0).

『일곱 대의 기타』는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큰 변혁의 시대였다. 무엇보다도 세계 제 2차 대전을 통해 미국의 흑인들은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전했었다. 흑인들에게는 피부색만 다를 뿐 완전한 미국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였으며 흑인의 미래는 늘 암담하게만 보였다. 역설적이게도 흑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설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종 차별이 무너졌다는 것이며 또한 전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흑인들을 더욱 자극시켰다고 볼 수 있다. 흑인들에게 전쟁이 끝났을 때는 뭔가 엄청난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흑인들은 미래의 꿈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후 실상은 달랐다. 흑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쟁에서 얻은 부상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흑인들을 더욱 괴롭힌 것은 예전과 다름없는 인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였다. 윌슨은 종전 후의 흑인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다 죽을 수 있는 의지와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사실 상황이 바뀌고 미국의 완전한 시민권자의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 믿었다. 전쟁이 끝나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We had just gone off and demonstrated our allegiance and willingness to fight and die for the country,” Wilson said: “We actually believed that things would be different, and that we would be accorded first-class citizenship. We came back after the war, and that was not true.” (Lahr 99)

흑인들에게 참전하기 전과 참전후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더욱 고통스러웠다. 희망이 암흑으로 바뀌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고 부당한 인종 차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더욱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일곱 대의 기타』의 플로이드는 평범한 개인이지만 그가 가졌던 환상은 세계 제 2차 대전에 참여했던 흑인들의 환상과 다를 바가 없다. 플로이드는 음악가로서 시카고에서 누렸던 명성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플로이드는 시카고라는 과거의 틀 속에 갇혀 지금 피츠버그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과거 시카고에 살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피츠버그에서는 과거의 틀 속에 갇혀 부적응자가 된 것이다. 그나마 전당포에 맡긴 기타는 플로이드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시카고에서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과거의 화려함의 상징이다. 윌슨은 『조 터너의 왕래』(*Joe Turner's Come and Gone*, 1988)의 서문에서 “성경책과 기타를 들고 도착하는 그들의 심장은 가치 있는 노랫소리로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They arrive dazed and stunned, their hearts kicking in their chest with a song worth singing. They arrive carrying Bibles and guitars 203) 라고 묘사하며 당시에 흑인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북부로 향했던 설레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와 시카고는 플로이드에게 모두 과거로 존재할 뿐 현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플로이드는 전당포에 맡긴 기타를 되찾지 못하고 시카고로 못가면 모든 희망이 좌절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플로이드는 시카고행이 실패하자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백인들에게 저항하고자 한다. 플로이드는 시카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좌절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플로이드: 나에게서는 원래 시카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일곱 가지가 있었지. 그들이 여섯 가지로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여섯 가지 중 하나를 시도하려고 했었지. 그들이 다섯 가지로 줄였어. 내가 밀 때마다 그들은 당기지. 그들이 네 가지로 줄이더군. 상관없어. 일이 항상 잘 못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이 세 가지로 줄여 버리더군. 나는 둘 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고 했지.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들이 두 개로 줄여버렸어. 난 시카고로 갈 거야. 난 내가 묘지를 미리 사 두어야 하고 내가 보이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말이야. 난 시카고로 간다고. 난 내 인생에서 뭔가 없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없는 삶을 살고 있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뭔가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FLOYD: I had seven ways to go. They cut that down to six. I say let me try one of them six. They cut it down to five. Everytime I push, they pull. They cut it down to four. I say what's the matter? Everything can't go wrong all the time. They cut it down to three. I say three is better than two I really don't need but one. They cut it down to two. See ... I'm going to Chicago. If I have to buy me a graveyard and kill everybody I see. I am going to Chicago. I don't want to live my life without. Everybody I know live without. I don't want to do that. I want to live with. (87)

플로이드는 시카고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시카고에서 음악적인 재능을 펼친다고 해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피츠버그와 다를 바 없다.

과거의 집착과 환상 속에 빠져있는 또 다른 인물은 헤들리(Hedley)이다. 헤들리는 개인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완전히 함

몰되어 있는 인물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결핵에 걸려 있으면서도 오직 아프리카의 전통 민간요법만을 고집하면서 미스 사라(Miss Sarah)가 조제해주는 약만 먹겠다고 하면서 현대 미국 사회의 진료 방법을 거부한다. 그가 이렇게 현실을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개인적으로 겪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헤들리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는데 백인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서 백인들의 말을 보살피주었는데 정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헤들리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가장 극단적인 죽음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심각한 병에 대해서도 백인들의 처방 방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를 거부하는 헤들리의 모습은 흑인들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이다. 윌슨은 과거에 집착하여 모든 것을 부정하는 모습은 흑인의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헤들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곧 흑인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윌슨은 헤들리의 경험을 작품 속에서 비중있게 다루면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으며 또한 과거 속에 사로잡힌 모습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현상임을 그리고 있다.

헤들리는 플로리드가 시카고에서 음악가로서 성공을 꿈꾸는 모습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피츠버그에서 대농장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피츠버그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환상에 불과한 잣더미와 같다. 피츠버그는 현재 산업도시로 성장 중이며 오히려 농장이 있다면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는 대농장 주인을 꿈꾸면서 백인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헤들리: 내가 농장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돌아다닐거야. 얼마나 큰 농장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 끝까지 걸어서 다 다녀볼테야. 그때는 내가 대부호가 되겠지. 그날은 내가 옷을 멋지게 입고 마을을 가로질러 다녀야지. 그날이 바로 아버지가 날 용서하는 날이 될 거야. 그 멋진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 찬양해주겠지. 내 농장은 풍성하게 수확하겠지. 그리고 아버지는 강렬한 기

억으로 떠오르겠지 그날 말이지. 백인들은 그때 더 이상  
나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못할거야.

HEDLEY: When I get my plantation I'm gonna walk around it. I  
am going to walk all the way round to see how big it  
is. I'm gonna be a big man on that day. That is the  
day I dress up and go walking through the town.  
That is the day my father forgive me. I tell you this  
as God is my witness on that great day when all the  
people are singing as I go by ... and my plantation is  
full and ripe ... and my father is a strong memory ...  
on that day ... the white man not going to tell me  
what to do no more. (30)

헤들리는 피츠버그에 농장을 건설하면 흑인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백인들에  
게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  
의 말을 현실로 믿고 현재 산업도시로 성장 중인 피츠버그의 농장주가 되겠다  
는 꿈을 갖고 있다.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 버디 볼든(Buddy Bolden)이  
돈을 보내줄 것이라는-을 허황되게 믿고 있다. 헤들리에게 아버지는 과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헤들리는 백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적인  
성공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 속에서 약속한 돈에 대한 약속  
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헤들리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즉,  
루비(Ruby)는 뱃속의 아기 이름을 이미 킹 헤들리 2세(King Hedley II)라고  
지어 헤들리의 과거에 사로잡힌 환상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 2세는 보통 전통의 계승이라는 뜻이 더 강하기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들리의 이름을 그대로 지었다는 것은 또 다른 헤들리를 받아들이  
겠다는 의미이다. 헤들리는 루비에게 자신의 아기를 낳아달라고 하는 것은 단  
순히 2세를 낳아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미국 사회 속에서 여전히 저항과 투쟁  
을 통해 흑인의 자존심과 민족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헤들리의 다음의 대사를 통해 미국 사회 속에서 백인에 대한 흑인

의 저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헤들리: 난 개가 아니라고. 뼈다귀를 던져주면 내가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겠지. 뼈다귀를 달려가서 물어오고 꼬리를 흔들어서 거라고 생각하겠지. 흑인은 개가 아니라고. 흑인은 유대의 사자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빚어낸 작품이라고. 에디오피아가 그 날개를 활짝 퍼줄거야. 흑인은 개가 아니니까. 나는 독수리가 둥지에서 날아오르듯이 먼지를 털고 일어설거라고.

HEDLEY: I am not a dog! You think you can throw a bone and I run after it. You think I fetch for you and wag my tail for you. The black man is not a dog! He is the lion of Judah! He is the mud God make his image from. Ethiopia shall stretch forth her wings! The black man is not a dog! I will stir up the dust around me like the eagle stirreth its nest. (93-4)

헤들리는 플로이드보다 더 환상 속에 빠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흑인은 백인에 대해 더 이상 노예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마치 자신이 구원의 예수인양 착각하기도 한다. 헤들리는 더 이상 환상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는 동료 플로이드를 살해함으로써 백인에 대항하겠다는 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농장을 지어 백인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야심, 흑인은 백인의 노예가 아니라는 주장, 예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그의 환상은 결국 동료를 죽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의 환상 속에 빠진 저항적이면서도 투쟁적인 이미지는 흑인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어 버린다.

### Ⅲ. 사회적 소통을 위한 현실 직시

『일곱 대의 기타』에 나오는 플로이드와 헤들리는 과거와 환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물들이기에 흑인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윌슨은 흑인들의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면서 현재의 미국 사회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루이스(Lewis)와 케인웰을 등장시킨다. 이 두 사람의 대사는 바로 윌슨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며 그들은 윌슨의 대변인 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윌슨은 두 인물을 통해 흑인들의 과거 경험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시대착오적 경험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비록 흑인의 경험이 주로 죽음과 연관된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흑인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루이스와 케인웰은 플로이드와 헤들리의 과거에 대한 집착과 비현실적인 환상을 일깨워주려고 하고 있으며 또 현대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시대가 변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플로이드와 헤들리는 과거에 이미 겪었던 경험이 죽음까지도 이르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었기 때문에 루이스와 케인웰의 설득은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비록 작품 속에서는 루이스와 케인웰의 중도적 입장과 현실 인식은 다른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 윌슨이 전달하고자하는 의도는 충분히 대사 속에 반영되어 있다. 루이스는 병원을 감옥으로 오인하는 헤들리에게 시대가 변했음을 인지하고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조언한다.

루이스: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요즘은 흑인들도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들이 당신의 병이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결핵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는데.

LOUISE: It ain't like it was before. They letting the colored people in the sanitarium now. You can get help. They can make you well. You don't have to die fro T. B.  
(25)

루이스의 이러한 충고에 대해 헤들리는 백인들이 자신을 가두어두려는 나쁜 의도로 받아들인다. 결핵에 걸려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인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요양원 자체도 백인이 만든 사회적 감옥이며 또 거기에서 진찰을 담당하는 백인도 자신을 가두어서 병을 더 악화시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스 사라의 전통 요법이 훨씬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병을 낮게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케인웰은 헤들리의 병을 낮게하기 위해 루이스가 요양원으로 무조건 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려준다. 지금의 요양원은 원래 백인들만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새로운 요양원이 지어져서 백인 환자들이 그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지 시대가 변해서 흑인들이 요양원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케인웰: 백인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의 반은 빈 상태로 있거든. 그곳을 채우려는 의도야. 헤들리도 그곳으로 가지. 그 요양원에서 허락했다고. 나올 수가 있다고.

CANEWELL: They moved all the white people out and it's sitting there half empty. They looking to fill it up. He ought to go on and let them take him. He and get well. (82)

윌슨은 바로 케인웰처럼 흑인들도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충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플로이드와 헤들리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플로이드는 주변의 충고에 대해서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에 헤들리는 나중에 루비와 더불어 교회를 찾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케인 웰(Canewell)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흑인들의 노예제도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는 과거 속에서 꿈쩍달짝 못하는 헤들리와 플로이드와는 달리 아픈 과거를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와 미래를 향

해 나아갈 지 고민한다. 그는 음악적 성공을 위해서 시카고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흑인이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백인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케인웰은 플로이드에게 흑시 시카고에 가서 일을 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라고 말한다.

케인 웰: 잭 스미스를 찾아가서 전체 수익에서 같이 나누지 않으면 또 수당을 포함해서 ... 나눠주지 않으면 어머니날 무도회에서 연주할 수 없다고 하라고. 그리고 홀씨에게 네가 목돈을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해. 그렇게 조금씩 주는 것을 목돈으로 해서 달라고 해 그리고 너는 그에게 조금 떼어주겠다고 해. 그래서 그가 작은 액수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럼 조금도 줄 수 없다고 하란 말이야.

CANEWELL: You go down there and tell Jack Smitty that you ain't playing no Mother's Day dance unless he give you a piece of the pie ... on top of your fee. And you tell Mr. T.L. Hall you tired of him turning your big money into little money. Tell him to turn your little money into big money and you'll give him the little piece. If he can't take the little piece tell him don't take nothing. (85)

케인웰은 플로이드에게 자신의 능력과 시간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플로이드는 권리행사보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하여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윌슨이 케인웰에게 부여한 역할은 비록 플로이드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개인적인 과거와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현실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 수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헤들리는 개인적인 과거

의 경험으로 인해 주변의 조언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판단력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곧 월슨이 흑인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여 현재와 미래와 연계하여야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현대 미국 사회의 흑인들이 『일곱 대의 기타』의 플로이드와 헤들리같은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흑인들끼리는 극단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만 일으켜서 화합과 통합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과거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케인웰은 베라에게 골든셀(goldenseal) 뿌리를 선물하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케인웰: 조심해.

(루이스가 퇴장한다. 케인웰은 골든셀의 뿌리가 드러나 있음을 알아차린다.)

아니 이런! 어떻게 된거야? 베라, 이렇게 심으면 이 식물은 말라서 썩어버린다고. 땅 속에다 심어야지. 안그러면 죽는다고

(베라가 그 식물을 보고는 다시 심기 시작한다.)

CANEWELL: Watch your step now.

(LOUISE exits. CANEWELL notices the roots of the goldenseal plant are uncovered.)

Whoa! What happened here? Vera, the roots are on this plant gonna dry out and rot. You supposed to put them in the ground. This plant gonna die.

(Vera looks at the plant and starts to fix it.)

위의 대화는 케인웰과 베라의 단순한 뿌리에 관한 대화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다. 즉, 흑인의 과거나 역사를 골든 셀의 뿌리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손상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케인웰의 식물의 뿌리를 통한 과거의 수용은 반드시 소중하게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플로이드나 헤들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케인웰의 시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사회 속의 흑인들이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과거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흑인의 미래는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현재에 잘 적응하면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 IV. 결론

아담 크러그네일(Adam Crugnale)은 윌슨의 작품들이 인종적인 부당함이나 이루기 힘든 아메리칸 드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6). 그의 말처럼 『일곱 대의 기타』에도 인종 차별과 환상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 플로이드가 과거의 시카고에서 잠시 누렸던 음악적 성공이나 헤들리가 환상 속에서 그려내는 피츠버그의 대농장을 사겠다는 꿈이 그러한 예이다. 그들은 미래의 성공을 꿈꾸면서도 현재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또 환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윌슨은 두 사람을 통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 가능성이 없는 환상적인 꿈은 결코 흑인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또 케인웰과 루이스를 통해 현실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과 과거의 수용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윌슨의 극작 의도는 케인웰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케인웰은 특히 베라와의 대화를 통해 흑인의 과거를 상징하는 골든 썸 뿌리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흑인의 과거 역사와 전통을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 지 보여주고 있다. 또 그는 플로이드에게 시카고로 되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와 대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먼저 협의한 다음 진행할 것을 충고한다.

과거의 집착과 잿더미와 같은 환상은 흑인의 미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월슨에게 있어 환상 그 자체보다 개인들이 그려내는 다양한 경험이 더 중요하기에 과거에 갇힌 환상도 흑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월슨은 『일곱 대의 기타』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일곱 명의 인물들에게 개개인의 독특함을 인정하여 과거의 집착과 환상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는 역사 다시 쓰기를 통해 흑인들에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고 또 환상적인 꿈은 허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바라카(Amiri Baraka)가 코울먼(Michael Coleman)과의 한 인터뷰에서 흑인 연극은 흑인들의 삶 자체를 다루며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33). 월슨도 흑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자 했으며 또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극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였다. 월슨은 나아가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미국 사회 속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 인 용 문 헌

- 손홍일. 『미국 흑인 연극사』 대구: 대구 대학교 출판부 1999.
- Baker, Houston A. Jr. *Modernism and the Harlem Renaissance*. Chicago: U of Chicago P, 1984.
- Berkowitz, Gerald. M. *American Drama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Longman, 1995.
- Bigsby, C. W. E. *Modern American Drama, 1945–2000*.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Coleman, Michael. “What Is Black Theatre?: An Interview with Imamu Amiri Baraka.” *Black World* 20 (1971): 33.
- Crugnale, Adam. “People’s Light tunes up ‘Seven Guitars’ to open season.” *Montgomery News* (September 11, 2012)
- Lahr, John. “Black and Blues.” *New Yorker* 15 (1996): 99
- Mills, Alice. “The Walking Blues.” *The Black Scholar* 25 (1995): 30–5.
- Murphy, Branda. “The Tragedy of Seven Guitar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ugust Wilson*. Ed. Christopher Bigsby. Cambridge: Cambridge UP, 2007.
- Neal, Larry. “The Black Arts Movement.” *The Drama Review* 12 (1968): 152.
- Pettengill, Richard.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Interview with August Wilson.” *August Wilson: A Case Book*. Ed. Marilyn Elkins. New York: Garland, 1994, 202.
- Plum, Jay. “Blues, History, and the Dramaturgy of August Wilson.” *African American Review* 27 (1993): 561–67.
- Shannon, Sandra G. *The Dramatic Vision of August Wilson*. Washington, D C: Howard UP, 1995.
- Wilson, August. “I want a Black Director.” *May All Your Fences Have Gates*. Ed. Alan Nadel. Iowa City: U of Iowa P, 1994.

\_\_\_\_\_. August. *Seven Guitars*. New York: Dutton, 1996.

\_\_\_\_\_. *Three Plays*. Ed. Paul Carter Harrison.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84.

Abstract

## **Putting the Past in Perspective Leads to Self Acceptance in August Wilson's *Seven Guitars***

Jeong, Seungjo

August Wilson primarily describes the problems with sticking to the past and facing to reality in *Seven Guitars*. In order to project his active voice, he suggests Afro-Americans should accept the past for the future with balanced and unbiased views. His characters, Floyd and Hedley, are captured by the past and delusion denying that things have changed in the American society.

The reason why Wilson treats the individual's past more importantly in this play is that it could be shared among the Afro-Americans and move up to American society. Floyd and Hedley remain living in the past and their illusion. They don't want to change their perspectives on American society because their thoughts and eyes are always right. Floyd is willing to go back to Chicago. He suggests that if he goes back to Chicago, he can solve problems, and again money, success, and honours. He does not want to live in Pittsburgh because he sticks to the illusion that only going back to Chicago will make him live well and comfortable. That means that he has no adaptability nor flexibility in reality. He is the invisible man in American society.

Hedley also lives in the prison of the past. He suffers from the tuberculosis but rejects modern medicine because he has a strong belief that only traditional prescriptions can save him. He does not want to move to the sanatorium for better remedies. He thinks that he will die at the

sanatorium. His father was sick and died because the white people did not take care of him although he asked for the doctor. That's why he is planning to gain revenge against the White people. Even worse, he has a delusion that he is Christ and the leader of the Black People. That phantasm makes him kill Floyd and cause tragedy.

On the other hand, Only Canewell has objective eyes and could criticize other characters. He is trying to give some ideas to Floyd and Floyd should ask for his right and reward for his ability before he starts to work and play with his guitar at the club. Canewell considers the past of Afro-American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However, He thinks that if the future generation receives the past of Afro-American history wrongly, an unexpected situation could occur for the whole of American society.

Wilson suggests that the voice of Canewell is very productive for the next generation and the way of his accepting the past could be different from the case of Floyd and Hedley. Wilson allows his characters to speak with various voices but divides them into two types which are the warning ones and the suggestive ones.

**Key Words: August Wilson, past, death, dream, success**

**오거스트 윌슨, 과거, 죽음, 꿈, 성공**

논문접수일: 2014.11.08

심사완료일: 2014.12.13

게재확정일: 2014.12.23

이름: 정승조

소속: 안산대학교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0번지 우남@232동 402호

이메일: justjeong@gmail.com